

대행 스님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꺼지지 않는 마음의 불을 켜세요

(지난 호에 이어서)

그러니까 우리 마음공부 하는 사람은 악하게 인연을 잇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건 왜냐하면 전자에 미생물에서부터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턱 보니까 내 부모 안 됐던 분이 하나도 없고 내 자식 안 됐던 게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내가 나와 보니까 이 세상의 일체 만물 만생이 내 스승 아닌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만물이 다 스승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망했다, 네가 속이 좁게 나를 이렇게 무시하니까 너에게 맛 좀 보이겠다, 그걸 꼭 갚겠다, 악의로 갚겠다' 이런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게 모두가 내 부모 내 자식 내 형제라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돌아가면서…, 그래서 육도윤회라는 것도 있죠.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인, 즉 하늘 사람, 이렇게 치는데, 지옥은, 지금 현재 갇혀 있는 사람들 보세요. 감옥소에 갇혀 있죠? 그런데 지옥이 없습니까, 어디 지금? 여기 이 시대에 있지. 그리고 아귀는요, 땅속에서 사는 지렁이도 보면 입은 요만한 데다 몸은 커서 그냥, 먹기는 먹어야 할 텐데 하루 종일 먹어도 양이 차질 않는 거예요. 땅속에서 사는 그런 것들이 전부 아귀예요, 그게. 우리가 말로 아귀 축생 뭐, 귀신 이런다고 해서 말로만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영령들도 사람들처럼 저렇게 갇혀서 지옥고를 겪죠. 그래서 '국내 밥내도 못 맡는다' 이런 말이 있죠. 국 냄새 밥 냄새도 못 맡는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개같이 살았으면 개로 떨어진다고 하죠. 그런데 축생들도 보세요. 사람하고 축생하고 같이 살면서 자꾸 윤회하면서 돌아가죠. 그리고 아수라를 좀 보세요. 사기범, 강도, 깡패들이 모두 모여 있는 각 집단을 한번 보세요. 그게 아수라장이죠. 아수라 세계요. 인간계에는 우리 보통 인간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천인, 하늘 사람도 여기 살고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 마음공부를 하셔서 하늘 사람으로서 사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하늘 사람으로 사시는 분들요.

그런데 그렇게 완벽하게 내 집착을 다 버리고, 이 몸의 모든 거를 집착을 안 하고 모든 거를 함이 없이 이렇게 하고 계신데, 그래서 벗어났어요. 벗어났으나 과거로부터 이 몸속에 있는 의식들이 자꾸 자기의 마음을 불안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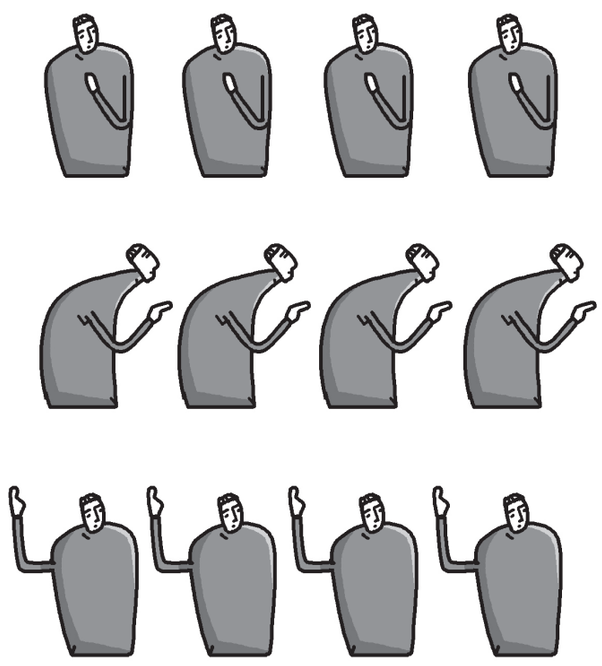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만들고 작동을 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습이 있습니다, 습! 습을 떼지 못하면 다시 미(迷)해져서 인간으로 떨어진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요만한 것 하나도 다 거기에다가 맡기고 살아라. 그럼으로써 그것이 다 녹아 버린다. 하나에다 모든 거를 맡기면….

요즘은요, "예수재래요." 하면서 봉투를 갖다가 주고는 합니다. 그게 나한테 오면요, 그러니까 성도 주소도 이름도 모르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온 것만 알죠. 인간은 그런 것이 없이는 안 되지만 부처님의 마음으로서 보살이 응신으로 화해서 간다면 주소고 이름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게 아주 멋진 공법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그저 보이는 것만 제일인 줄 알고 '보니까 이렇더라' 하고 안 보이는 건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는 데서 마음속으로 한 거는 생각을 안 해요. 안 보이는 데서 내 마음속으로 한 건 누가 모르니까 모르는 줄 알구요. 내 마음을 넉넉히, 보이지 않는 데서라도, 자기 혼자라도 넉넉히 써야 바깥으로 넉넉해진단 말입니다. 남이 보지 않는다고 넉넉히 쓰질 않고 그냥 쥐어짜고 있다가, 남이 보는 데서만 돌아서서 허허 웃고 그냥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이중이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버리세요. 한 철 살 놈의 거, 이래도 한 철 저래도 한 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 그냥 버리고 사세요. 버린다면 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강도가 들었다 하더라도 '그거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강도도 사람이니까요. 만약에 그러한 일이 있다면, 이 마음이 그 강도와 둘이 아니게 될 때 비로소 강도도 회개를 하기 이전에 벌써 몸부터 조아리게 되는 겁니다, 달려들기 이전에. 그러면 선처를 베풉니다. "나 이거밖에 없는데 가지고 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밤중에 왔어? 낮에 좀 와서 의논하지." 하고요. 난 그런 예가 여러 번 있었죠. 그랬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내 그 마음 아닌 마음이 그쪽 마음으로 결부가 되면요, 이제는 그런 짓 못 해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서 벌써 그렇게 하는 걸 거부하고 나가는걸요.

영계성이나 암이나 이런 종류도요, 어디에서 생기는가 하고 검토를 계속했거든요. 검토를 해 보니까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인과성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 가지고 유전이 되는 거죠.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과거의 인연으로 인해서, 악한 인연으로 인해서 그것이 자기 몸에 주둔해 있다면 그 몸에서 발작을 일으키죠. 모두 잡아먹고 이렇게 되니까 굳어지고 암이 되죠. 그런 거와 같이 몸속에 붙어 있더라구요. 아주 뭐, 거죽으로 나타나지도 않게. 그거를 떼어 내니까 병원의 의사도 그것을 맘대로 조치해서 살릴 수가 있어요. 그걸 떼어 내지 않는다면 의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내가 공부가 모자라니까 못 하지.' 이런 생각도 마세요. 이거는 공부를 오랫동안 했다 안 했다 이걸 떠나서 마음이 그렇게 충족이 돼야 되는 거죠. 자기를 자기가 믿어야 되죠. 믿지 않으면 어떡할 겁니까? 남이 자기 대신 아파 줍니까, 죽어 줍니까, 또는 먹어 줍니까, 잠을 자 줍니까, 똥을 눠 줍니까? 자기가 꼭 해야 돼, 그건. 자기가 움죽거리는 거 자기가 해야지 대신 움죽거려 주는 법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움죽거리게 된 동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는 얘기죠. 자기의 근본, 그 생명의 근본이 아니라면 바로 자기가 움죽거릴 수도 없거니와 속의 인연들도 모두 같이 멸종하죠. 그렇기 때문에 움죽거릴 수가 없는 거죠. 엽렵하시다면 이 공부 열심히 하시면서 어떠한 의심이 가는 점이 있으면 그냥 자꾸자꾸 그렇게 차단을 해 버리고, 또 둘 아니게 그냥 껴안을 건 껴안고, 또 보낼 건 보내고 자꾸 이렇게 하세요. 그저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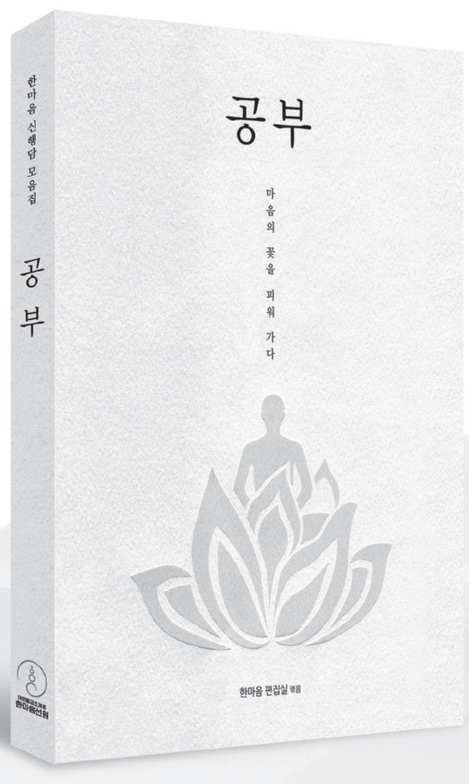
개별적으로 내가 산다고 하면 안 되고요. 나를 이끌어 가는 나와 지금 이끌려 가는 나가 둘 아니게 항상 같이 수레바퀴 돌듯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난번에도 전선줄을 말했는데, 줄 속에 알맹이하고 껍데기하고 같이 돌아가지 어떻게 따로따로 돌아갑니까?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불을 이렇게 켤 수 있고, 또는 따뜻하게 해 줄 수가 있고, 또는 전체를 살릴 수도 있고, 이 모두가 전력이 아니라면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무수하게 살리고 있는 그 줄 하나가 말입니다, 하나라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되지만 각각 집집마다 그 하나의 줄이 끊어져서 없으면 그 집은 하루 종일 추워서 살 수도 없죠, 원 근본 줄이 끊어지면요.

그렇듯이 사람의 이 마음이라는 거는 체가 없고 어떤 개수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이 하늘을 덮고도 남고, 들고도 남고, 이건 한계가 없는 것이에요, 마음이라는 건요. 그래서 마음이 좁쌀 알갱이 같은 집을 지었다 하면 이 허공에 있는 모든 손님들이, 생명들이 그 좁쌀 알갱이한테 다 들어가도 또 남아요. 삼라만상을 다 한 주먹에다 쥐어도 쥐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도 자유자재권을 가지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게 되더라는 얘기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 공부를 잘해서 재주가 있다면 여기 이 지구에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이상하죠? 선신 세계에 가서 살 수도 있죠. 즉 말하자면 허공에 큰 문제가 생겨서 뭐, 혹성이 날아왔다 이럴 때도 '그 혹성이 내가 될 수가 있다' 는 것만 알아도 이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그 혹성으로 인해서 부딪치게 되면 사람들이 모두 죽으니까 내가 그 혹성이 된다면 내가 바로 딴 데로 피해 가죠, 해치지 않게. 그렇게 무엇이든 내가 될 수 있다 하는

☞ 22면으로 계속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판매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0
●운주사 02-3672-7181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온라인 주문 마하몰 www.mahamall.co.kr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